

트럭 한대서 시작, 신용으로 육·해·공 아우른 물류 대부 '재조명'

“국익 최우선” 한진 창업주 수송보국 철학, 면면히 계승

조중훈 한진 창업주 탄생 100주년

경영 이념 ‘국민 경제와의 조화’
‘신용’ 바탕으로 수송산업 일궈
청년시절 日 조선소서 주경야독
수송으로 韓 산업화 이바지 커

“사업은 지고도 이기는 것이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다.”(한진그룹 창업주 조중훈·1920~2002년)

한진그룹은 3월5일 조중훈 창업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 하갈동 소재 신갈 선영에서 약 60명의 그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추모행사를 가졌다.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는 ‘수송보국(輸送報國) 철학을 바탕으로 한 나라의 동맥인 수송 사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국가경제를 발전시킨 인물이다. 특히 ‘교통과 수송은 인체의 혈관처럼 정치·경제·문화·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수송으로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선구적



한진그룹 관계자들이 5일 조중훈 창업주의 선영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경영인이기도 하다.

조 창업주는 1920년 2월11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조명희 선생과 태천준 여사의 4남 4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1945년 11월 1일 인천에 트럭 한대를 가지고 한진상사를 창업해 한진그룹의 태동을 시작했다.

조 창업주는 사업가의 기본 소양을 ‘신용’이라고 여기며 한진상사를 탄탄한 회사로 성장시켰다. 그런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전쟁 이후 한진상사의 기반은 모두 쑥대밭이 된 것. 하지만 조 창업주는 그간 쌓아온 ‘신용’의 힘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조 창업주의 ‘신용’에 대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1956년 어느 트럭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의 운전기사가 수송을 맡은 미군 겨울과카 1300여 벌을 차떼기로 남대문 시장에 팔아 넘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조 창업주는 직한 명을 남대문 시장에 상주시키고 도난

당한 물건이 시장에 유통되면 전부 사들이도록 했다. 금전적으로 당시 3만달러라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미군들은 조중훈 창업주의 확고한 ‘신용’을 확인하게 됐다.

조 창업주는 축적한 경험과 자금을 바탕으로 수송·물류 사업의 범주를 넓히고 사업의 안정성을 다져나가기 시작했다. 1967년 7월에는 해운업 진출을 위해 대진해운을 창립하고 그 해 9월에는 베트남에 투입된 인원과 하역장비, 차량, 선박 등에 대한 막대한 보험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인수했다. 1968년 2월에는 한국공항, 8월에는 한일개발을 설립하고 9월에는 인하공대를 인수하기에 이르렀다.

이듬해인 1969년에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 대한항공을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항공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는 “국적기는 하늘을 나는 영토 1번지고, 국적이 날고 있는 곳까지 그 나라의 국력이 뻗치는 게 아니겠소.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전용기는 그만두고서라도 우리 나라 국적기를 타고 해외여

행 한번 해보는 게 내 소망이요”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간곡한 권유를 받아들인 과감한 결단이었다.

1977년 5월 조 창업주는 육·해·공 종합수송 그룹의 완성을 위해, 경영난을 겪고 있던 대진해운을 해체하고 컨테이너 전용 해운사인 한진해운을 설립했다. 또한 1989년 5월 한진중공업을 출범시켜 청년시절 일본 고베의 조선소에서 주경야독하면서 키웠던 청운의 꿈도 이뤄다.

조중훈 창업주는 기업은 반드시 ‘국민 경제와의 조화’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운영해야 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위해 기업이 일정 부분의 손해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부실덩어리였던 대한항공공사, 대한선주와 같은 공기업을 인수하게 된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조중훈 창업주의 이와 같은 경영철학 속에 한진그룹은 국민 경제와의 조화를 이루며 국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다.

2002년 조중훈 창업주가 타계한 후에도 그의 탁월한 경영철학, 수송산업에 대한 열정과 애정은 한진그룹을 통해 계승, 발전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5G 이동통신 장비, 뉴질랜드 상륙

현지 최대 이동사 스파크와 공급계약
뉴질랜드 첫 진출, 연내 상용망 구축

삼성전자가 뉴질랜드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스파크와 5G 이동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뉴질랜드에 이동통신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스파크와 협력해 연내 일부 지역에 5G 상용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상용화한 3.5GHz 주파수 대역 5G 기지국 등 통신장비

를 공급하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축적한 기술과 대규모 상용망 구축 경험, 네트워크 최적화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파크는 2019년부터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단말, 핵심 칩 등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한 성능 검증을 통해, 삼성전자 장비의 빠른 속도와 품질, 초저지연 성능 등 실증 시험을 진행해왔다.

스파크 구매부부장 라제쉬 싱은 “삼성전자는 수년간의 5G 상용화 경험뿐 아니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가입자

들에게 실감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 통신장비를 활용해 안정적 통신 품질,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5G 상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 김우준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뉴질랜드에서의 첫 번째 이동통신사업 수주로, 앞으로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5G를 더욱 확대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 CNS, 사내벤처 ‘헴프킹’ AI 통관 전문기업으로 분사

컨테이너 통관 시간 5시간→5분

LG CNS가 사내벤처 프로그램으로 육성한 로봇업무자동화(RPA)·인공지능(AI) 통관 분야 전문기업이 등장했다.

LG CNS의 사내벤처 ‘헴프킹’은 국내 최대 관세법인 세인과 통관 자동화 사업을 수행 중이다. 관세법인은 기업이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통관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체다. 관세법인 세인이 보유한 2000여 기업고객에 전달되는 물품 통관 업무에 LG CNS와 헴프킹이 국내 최초로 RPA와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RPA·AI 수입 통관 자동화 기술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 1개 물량 기준으로 통관 처리 시간을 5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여준다. 전 세계 각지에



LG CNS 사내벤처 헴프킹의 김승현 대표와 양자성 CTO(왼쪽)가 통관 자동화 솔루션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LG CNS

서 접수되는 인보이스 정보를 읽어들이고 관세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세 비용 산정까지 모두 RPA와 AI가 처리한다.

먼저 전 세계 각지에서 접수되는 인보이스를 광학문자판독(OCR)로 읽어낸다.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해 인보이스 문서의 물품번호·도착일·보

료 등 필요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품목·수량·단가·금액 등 관세 시스템에 입력하는 필수 정보만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관세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는 RPA가 담당한다. 통관용 RPA는 헴프킹이 순수 자체개발한 솔루션이다. 관세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로 관세 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헴프킹은 이 영역에도 AI를 도입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용을 산정하는 작업까지 자동화할 계획이다.

LG CNS는 사내벤처 헴프킹을 RPA·AI 전문 기업으로 분사했다. LG CNS는 헴프킹이 외부 스타트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사내 개발자 지원,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부여, 사무공간 제공 등 약 9억원을 투자하며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삼성전자 2020년형 QLED 8K TV.

/삼성전자

삼성 QLED 8K, TV 최초 와이파이6 인증

삼성전자 TV가 빠른 데이터 송수신 능력을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와이파이6 기술표준 협회에서 2020년형 QLED8K TV 와이파이6 인증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와이파이6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대 4배 높이는 기술이다. 여러 기기를 공

유기 하나로 접속해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삼성전자는 TV 최초로 와이파이6 인증을 받게 됐다. 최근 고화질 영상과 대용량 데이터를 TV나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하는 일이 잦아진 만큼, 와이파이6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김재욱 기자 juk@

SKC,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사업 강화

KCFT 동박공장 증설에 815억 투입

SKC가 성장이 예상되는 ‘배터리 소재’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

SKC는 5일 자사의 투자사인 KCFT가 제5공장 증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SKC가 인수한 KCFT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동박 제조업체다.

KCFT는 이번 증설로 고품질 동박 생산능력을 늘려 급성장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KCF

T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동박 생산능력 증설에 81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진행한 선행 투자분을 더하면 총 1200억원 규모다.

KCFT는 2021년 3분기까지 정읍공장에 연간 생산능력 1만톤 가량의 제5공장을 만든다. 2022년 초 상업화가 목표다. 제5공장 완공 이후 KCFT의 동박 연간 생산능력은 약 4만톤이 된다. 이번 투자 결정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